

## 비타푸드 2003을 참여하고 나서 ...

배진희 대리

(RNL생명과학)

RNL생명과학(주)은 창립한지 3년이 된 신생 천연 생물의학 바이오벤처지만 '21세기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천연물의 신규 스크리닝을 통한 Nutraceutical 제품 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 전개' 라는 모토 아래 기능성 의약식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시회인 비타푸드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였다.

서울대 연구소와 공동으로 천연물 스크리닝기술, 최첨단 추출, 농축기술 및 특수코팅기술로 개발된 당뇨병자의 식이 요법에 도움이 되는 당뇨식이요법쌀 '소당미'와 당뇨병자용 기능성 식품 원료로서 유용한 가능성을 지닌 '소당엑스', '소당전조분말', '소당코팅분말'을 선보였다.

회사와 제품의 홍보라는 약간의 부담감을 지닌채 5월 11일,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스위스에 도착하기까지 13시간의 비행시간은 출국 전 지닌 부담감은 물론 비타푸드 2003 참가준비와 더불어 여러 업무에 대한 피곤함을 풀 수 있는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현지시간 5월 11일 밤 11시(참고로 스위스와의 시차는 썬머타임으로 한국시간보다 7시간 늦었다), 스위스 제네비에 도착하였다. 스위스의 내음과 첫발을 내딛은 기분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장을 챙겨 전용셔틀버스에 오르기에 바쁜것에서 여유로운 여행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정된 NH GENEVA AIRPORT HOTEL에 도착하였고, 노곤한 몸은 어느새 침대에 있었다.

시차적응이 되지 않았을 텐데 기특하게도 우리들 눈은 이미 아침 6시에 떠져 있었다.

오늘의 할일과 앞으로의 전시회 일정을 계획하고, 여러 소소한 일들을 생각하자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배꼽시계의 자동스런 시차적응은 조물주의 선물이 아닌가 한다.

제네바 팔엑스포 전시관에 도착하자 전시회 참가업체로서의 본분이 떠올랐고, 우리들은 오늘 5월 12일의 임무 'STAND SETTING'에 충실했다. 포스터를 붙히고 조명의 위치, 전시대세팅, 제품 카달로그 등을 차곡차곡 정리하니 어느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드디어 전시회 첫날, 정장을 차려입고 EXHIBITOR NAME CARD를 단 우리들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으로 전시회 참여에 임했다.

정부의 무역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보조로 이루어진 울 전시회는 80개국에서 300여 개의 부스를 설치, 참가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우리 부스를 포함하여 셀바이오텍, 유진사이언스, 키토라이프, 셀렉스 등 1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부스마다 바이어 상담 및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역동적이기까지 했다.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 및 호르몬 관련 식품 등 작년에 비



해 더욱 여러 분야로 응용된 제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기능성 식품에 관한 세계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스위스가 불어권이라는 것을 감안해 불어 통역가이드와 함께한 올해 우리의 비타푸드 2003 참가는 언어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부스에 유럽지역내 업체의 발길이 다소 뜸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찾아오신 방문객에게서 느낀 전시의 영향에 대한 뿌듯함은 지속적인 참가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항상 시작에는 끝이 있듯이 전시기간 3일 동안의 방문업체들과의 상담록을 정리하며 이번 전시회를 마쳤다.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신제품의 정보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비타푸드의 목적을 생각하며 내년 Vitafoods China (2004년, 북경서 열릴예정)를 기약한다.

비타푸드 참가의 목적은 EXHIBITOR 각각의 회사와 제품의 홍보에서 나아가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세계 여러 우수한 바이오 회사의 기능성 식품의 시장 동향, 최신기술 및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비타푸드 뿐만 아니라 여러 전시회에 이 목적을 되새기며 시행착오를 줄인다면 글로벌 마케팅의 선두주자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레 말해본다.

마지막으로 2003 중소기업청 무역촉진단 주관단체로 선정된 한국바이오벤처협회의 비타푸드전시회 참여에 대한 많은 협조와 도움 감사드리며, 함께 참가한 다른 한국 부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